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7.(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담당부서	경제문화전문위원실	**담당자**	장래복 사무관(044-300-7531) 김다현 주무관(044-300-7534)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주요업무 점검…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강조

-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까지… 주요 현안 살피고 개선 방안 주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제110회 정례회 제2·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발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시설 유지관리와 지도·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김창연 의원은 창업기업 지원과 관련해 지역별 상가 임대료 차이와

상가 공실 문제를 짚으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창업기업이 지역별 임대료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성규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주)의 싱싱장터 운영과 관련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품목 다양화와 판매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싱싱장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단과 방문객이 세종의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회 개최 효과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 청소년의 연주 역량을 높이고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단원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보완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